

교차로

부산 대불련 법회서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 스님은 26일 오후 1시 부산 동아대에서 열리는 대불련 부산지부 창립 32주년 기념 '복讞어린이들기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한다.

무주에서 방생법회

정락 수원 용주사 스님은 29일 무주 안국사 일대에서 방생 대법회를 봉행한다.

전불련 민족불교대학 개강

지선 전국 불교운동연합 의장 스님은 14일 제18기 민족 불교대학 개강식을 동반당에서 가졌다.

심화사 적광전 철불봉안

원행 삼화사 주지는 적광전 복원 신축완공 철불봉안 정안 법회를 28일 오전 10시 봉행한다. 이날 전안되는 철불(지방문화재 11호 노사나불)은 적광전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7개의 파편을 근거로 원형복원한 것이다.

'생명운동' 환경 위크샵

법륜 한국 불교환경교육원장 스님은 11~12일 부산 금강국 민호텔에서

'전환시대 생명운동의 새 지평을 위하여'를 주제로 환경위크샵을 가졌다.

복지기금 마련 성지순례

지도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장 스님은 25~26일 법흥사, 상원사, 정암사 등지에서 민성질환 독거노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경주시내 환경정화 운동

돈관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스님은 26일 녹색환경 감시단과 함께 불국사 성지순례 및 경주시내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한다.

제주시원 대웅전 낙성법회

해해 한마음선원 제주시원장 스님은 26일 72평규모의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연동저금통 모금 전달

평종 서울 영화사 주지는 1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배포한 포대화상 및 연동저금통 10개에 모금된 27만 6천원을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장산지역 문화재 애호활동

광명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역 밀업사 분회장 스님은 19일 중·고등학교 50여명 참여한 가운데 장산 성불사 참배 및 인근지역 문화재 애호활동을 펼쳤다.

직지사서 '97 학인대회

범우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비상대의원회의장 스님은 25~26일 직지사서 '97 학인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군인에 우리문화 교육"

강화 전통문화연구회 추진 실봉스님

"강화는 고려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유서깊은 불교문화의 고장입니다. 이 역사의 고장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친란한 불교문화의 향기를 접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강화도 하점면 사적골 무애원에 법당과 함께 전통문화연수원 건립불사를 추진 중인 실봉스님(무애원 주지).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도예 등 전통문화를 가르치며 전법활동을 펴 온 실봉스님은 "연수원이 완공되면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공식을 가진 전통문화연수원은 건평 130평으로 식당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오는 99년 완공될 예정이다. (속)

동대서 '문학과 인생' 특강

서정주 시인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초청으로 25일 오후 2시 학술문화관을

예술극장에서 '문학과 인생'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21세기와 동양사상'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3일 오후 3시 본관 중앙당에서 '21세기와 동양사상'을 주제로 공개특강을 연다.

'서울 문화유산' 학술대회

김영삼 서울문화사회회장은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문화유산의 보존과 현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네팔 직업교육센터 기금

김동훈 이웃돕는사람들 이사장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건설되는 직업교육센터

(가칭 '부다힐센터')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인제후보 월주스님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5일 이인제 前 경지사 예방을 받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며 '대통령후보에게 드리는 글'을 전했다.

장을병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예방한 이인제후보는 "정치권이 날로 혼탁해져가고 있어 국민신당의 출범은 필연적이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펴겠다"고 말했다.

월주스님은 "낡은 정치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다. 우리 중단에서는 공명선거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주스님은 이예앞서 14일 홍사덕 정무제1장관의 예방을 받고 공명선거 실현에 대해 환담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방문 공명선거를 위한 자문을 받고있는 홍장관은 "불교계의 정정정신이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스님되는 수계산림 수강 '열기'



새 스님 배출을 위한 조계종 제1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11일~18일)에서 13일 승가고사를 치르고 고불식을 마친 뒤 예비스님들의 강의시간.

가슴에 단 '목인' 명패, 대 사문의 길을 발원한 간절한 원력이 담긴 표정이 진지하고 의연하다. 숨소리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경건한 분위기속에서 예비스님들은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윤장에 의해 배우는 (대애도경)을 낱낱이 익히고 있다.

6년전부터는 비구니스님의 출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총 390명(사미213명, 사미니 177명)의 예비스님들이 접수 해 233명(비구 163명, 비구니 170명)이 정식스님이 되었다. 이제 이들은 미래 우리 승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

양산 통도사=김원우 기자

Focus

새 스님 배출을 위한 조계종 제18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11일~18일)에서 13일 승가고사를 치르고 고불식을 마친 뒤 예비스님들의 강의시간. 가슴에 단 '목인' 명패, 대 사문의 길을 발원한 간절한 원력이 담긴 표정이 진지하고 의연하다. 숨소리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경건한 분위기속에서 예비스님들은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윤장에 의해 배우는 (대애도경)을 낱낱이 익히고 있다.

6년전부터는 비구니스님의 출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총 390명(사미213명, 사미니 177명)의 예비스님들이 접수 해 233명(비구 163명, 비구니 170명)이 정식스님이 되었다. 이제 이들은 미래 우리 승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

양산 통도사=김원우 기자



김대중후보 인곡스님 방문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은 13일 총무원에서 국민의 김대중 후보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대통령후보의 태고종 총무원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국민의회의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조·태분규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고종은 과거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태고·조계 분규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에 부총재를 비롯 조성준, 추미애 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김대중 후보는 중세 가톨릭과 로마정권을 예로 들며 "권력이 종교와 결합하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전제하고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또 "2천5백년 전 부처님의 '인간평등선언'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이었다"며 "불교신도는 아니지만 불교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종교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승 은혜에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불교대사전' 불사 5천만원 낸 황상주 관장

지난 1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에서 추진하는 <불교대사전> 출간에 새달라며 사재 5천만원을 기부한 황상주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현역교수로서 불교사건 출간기금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있다.

한때 해인사에서 출가, 지관스님의 제자이기도한 황관장은 "불교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우리말 <불교대사전>의 대역사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기부는 은사스님이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보은 일 뿐'이라고 말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사전 편찬은 전문·상임 연구원 25명이 투입되고 연간 4억여원이 소요되는 대불사.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기업의 지원이 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황상주관장은 "많은 사람들이 간혹 불사 못지 않게 <불교대사전> 출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대중들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오종욱 기자

불자예술인 4명 문화훈장등 수상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포럼 및 문화훈장,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불자 예술인 4인이 각각 선정됐다.

△보관문화훈장=김용현(서예가) △은관문화훈장=박재삼(시인, 작곡), 이은구(이천문화원장) △문화예술포럼(공연예술부문)=김유정(극단 여인극장대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미술부문)=김익중(서양화가)

5천만원이 저로서는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지관스님께서 추진하시는 <불교대사전> 총 15권중 1권을 겨우 출간할 정도일 뿐이지요. <불교대사전> 출간이라는 대불사에 작은 주춧돌 하나 놓은 마음입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 △영복여교 516,380원 △성군관대 경복고등문화 50,000원 △최희숙 361,000원 △김남선 135,000원 △최미인 100,000원 △김선우 100,000원 △유한택 65,000원 △신은영 60,000원 △인성희 50,000원 △토마스 호락 50,000원 △차분성 40,000원 △신희희 40,000원 △정종전 30,000원 △김희지 30,000원 △이동찬 30,000원 △김명순 30,000원 △이연이 30,000원 △김영신 30,000원 △지인명 20,000원 외 △한 개 굿기운동 1,171,000원 △기타(은행이자) 216,778원 (15일 현재 총 837,983,55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제46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이병주 동국대명예교수(인문 사회과학 부문)와 박종일 대한인쇄문화협회장(출판), 장일남 한국작곡가협회부회장(음악), 서희건 월간조선부장(언론)이

서울시 주최 제46회 '서울시 문화상' 부문별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시인의 날인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병주씨 ◇박종일씨 ◇장일남씨 ◇서희건씨

쌍계사 승가대학인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1997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과) 00명
사집과(편입생) 00명
- 입학자격 : 사미계 수계자, 사미과 수료자(편입생)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② 은사스님 추천서 1부
③ 승적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진(3cm X 4cm) 3매
⑥ 사미과 수료증(편입생) 1부
- 준비물 :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접수후 면접
- 모집기간 : 1997년 10월 10일 ~ 11월 10일
-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83-1901

불기 2541년 10월 1일

쌍계사승가대학

학 장 선 곡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 지 차 동 광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종무소 : 993-3161~3 ■ 주지실 : 993-5002
■ FAX : 993-3164